

社說

오보와 사실보도의 딜레마

최근 우리신문 제1113호와 제1115호의 “교수휴게실 낙서사진”과 “인터넷ID 무료발급”에 대한 비난과 잘못된 항의가 이어져 물의를 빚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학내 일부의 목소리가 대학 언론의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대학언론의 양심을 지키고 있는 기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소치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사의 내용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면 기자가 기사의 내용에 대해 취재원과 취재물증을 제시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취재원의 신변을 보장해 주어야 할 기자가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취재원이 입을 피해를 알면서도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실로 무책임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언론소송에서 원고측이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를 입증해야 하는 미국의 예와 비교해 볼때 언론의 자율성 보장에 커다란 제약이 아닐 수 없다. 실질적 악의란 기사가 잘못되었음을 미리 알고서도 이를 기사화하거나 처음부터 기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개념이다.

대학은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공적인 언론의 위상이 정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는 대학 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념을 도입해 공인된 기자의 정당한 취재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언론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학생기자의 사명감과 의욕을 이룰 때, 앞선 언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필요성의 근거가 분명 학생기자들의 책임있는 활동과 노력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다.

대학언론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과 학생기자들의 책임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맹목적인 비판과 책임추궁은 기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현재 제도언론의 복지부동을 답습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복적 규제만 해결책인가

지난 28일 교무위원회는 한약분쟁과 관련해 제정당한 한의대생 81명 전원을 복적시킴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5월중순부터 줄곧적인 한약조제시험에 항의하여 이루어졌던 장기간의 수업거부로 제정당한 피해학생들에 대해 다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 이번 방침은 제정생들이 지난 3월 개학 이후 청강형식으로나마 꾸준히 수업에 참가하여온 점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수용한 것으로 실로 환영할만한 조치이다.

반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대학 학생정원령을 들어 행·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의 규제 방침은 지난해 한의대 사태와 관련해 재정지원액의 감축을 행한데 이어,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피해학생 구제 또한 막으려는 반교육적인 처사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의대생 무더기 제적사태의 근원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졸속 실시한 한약조제 자격시험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지난 93년 이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한약분쟁은 무엇보다 난마처럼 얽혀있는 우리의 의료체계의 불구성에 그 뿌리를 대고 있다. 달리 말해, 의료정책에 대한 원론적인 기준조차 갖지 못한 정부가 의료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익집단의 압력에 좌지우지되어 임시방편책만을 남발해 온 것이 작금의 상황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그간의 한약분쟁은 무더기 제적사태뿐만 아니라, 수지로 제산되는 않지만 국민적·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양산해 왔다.

제정학생들의 구제는 한약분쟁을 떠나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와 교육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한약분쟁이라는 오래된 질병에 대한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우리학교가 외부적인 압력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학생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교육자의 관점에서 매우 온당한 처사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하여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양·한방 공동의 절실한 과제를 해결할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시론

남녀평등실현, 부모 성 함께 쓰기 운동

녀의 자손 잊혀진 모계 혈통 찾기

박·임 성 아

(한국여성단체연합 간사)

태초에 옹녀가 있어 환인과 결합하여 단군을 낳았고 이가 바로 우리민족의 시조이다. 그러나 명백히 단군은 환인만의 피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다. 그에게는 옹녀란 이성의 피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단군왕검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단군왕검의 부인, 그전에 옹녀의 자손인 것이다.

부모성(姓) 함께 쓰기에 대한 논란이 곳곳에서 뜨겁게 일고 있는 듯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에도 문의 전화와 의견들이 빗발치고 있다.

남녀성비 불균형

부모성(姓) 함께 쓰기운동은 지난 1월 29일 대한여한의사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주최로 남녀성비 불균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태동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세계적으로 정상적인 남녀성비지수가 여성을 1백으로 보았을 때 남성이 1백6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정상치를 크게 벗어나고 있는 현실(90년 1백16.9, 92년 1백14.0, 94년 1백15.5)에 대해 공유하고, 특히 셋째아이를 내려갈 경우 그 비

율이 2백5.9(94년)로 심각한 상황의 원인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마치고 평가회의에서 부계로만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성씨 제도도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소로서 남녀성비 불균형의 원인중 하나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 자리에 계시던 이·이효재선생님께서 부모성(姓) 함께 쓰기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족보와 혈통을 중요

동에서 출발하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사회인식이 바뀐다면 자연히 제도와 법은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분명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것처럼 힘들고 더디게 움직일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설득으로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성씨에서부터 여남평등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 믿는다.

1997년 3월 9일 38회 세계여성의

부계 성씨 제도 남아선호사상의 원인 차세대 이름 결정엔 더 많은 논의 필요

시하고 그것의 표상중의 하나가 성(姓)이다. 가장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 성(姓)을 갈겠다”라는 표현이다. 그러나 그 혈통이 왜 부계로만 이어지는지, 각 세대마다 있었던 수많은 이성들의 혈통은 왜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지 못하고 살아 왔다. 우리가 우리의 뿌리를 소중히 여긴다면, 이제는 잊혀졌던 어머니들의 혈통을 다시 찾아야 하는 때인 것이다.

여남평등의식 확산

부모성(姓) 함께 쓰기는 문화 운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에서 부모성(姓) 함께 쓰기 선언을 하고자 각 신문마다 의견들을 개진하였다. 그중에는 이유값지 않은 이유를 부쳐 반대하는 것도 있고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도 있었다.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성씨를 가진 나라에서 강도, 제도, 오강 등 우수한 성씨가 많이 생겨 날 것이라며 기우를 표하는 의견도 있고 차세대에 가서는 성이 여남개라며 그 많은 성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 부모성 함께 쓰기 운동은



차세대, 차차세대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많은 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 아직 확실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고, 몇몇 사람들의 생

인간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질 사회일 것이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에서 한발 벗어나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러한 사고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발달해 나가는 것일 것이다.

열린사고 필요

우리는 부모성(姓) 함께 쓰기운동의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무시되는 어머니의 성(姓), 혈통이라는 미명하에 존속되는 가부장적 사회에 “왜?”라는 의문을 스스로 달아보며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러한 심숙고하에 나오는 찬성의 뜻이라면 더 할나위없이 기쁜 것이며, 반대의견이 나온다면 그대라도 명확한 반대의유가 있을 것이기에 충분히 의견을 받아 논의할 의사가 있다. 편협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좀더 열린 사고방식으로 이 문제를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사회는 인간이 평등한 사회일 것이며,

PC 역사의 땅 인각사 수몰위기

통신원

문화유산 보존위해 댐건설 ‘반대’ 서명운동 전개

개발과 보전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최근 보각국사 일원이 고려말엽에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인각사라는 절이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영원히 역사책의 한 구석에만 존재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88년 대구시에선 인각사 앞의 절벽에 댐을 건설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발표 직후부터 인각사 수몰에 대해 거센 반대여론이 일어나 아직까지도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또다시 댐건설계획이 거론되자 하이텔에선 수몰위기에 처한 인각사를 살리자는 댐건설 반대서명운동이 한창이다.

우선 인각사 수몰은 문화적 측면의 우려가 있다. 단지 좀 더 좋은 물을 먹기 위해 우리 문화재들을 수몰시키는 행위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일을 파는 매국노적 행위라고 한다.(ID: 8949) 또한, 댐건설은 물공급문제의 일시적 해결책일 수 있으나 한번 사라진 문화재는 다시 복구가 힘든 지속적 문제라는 의미심장한 의견도 있다.(ID: b2539)

자연과파괴에 대한 우려도 있다. 댐건설 이후 자연환

경 파괴는 필연적이며 대구의 물부족은 환경오염 때문인데도 환경오염으로 발생한 문제를 또다른 곳을 오염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은 터무니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ID: kaya) 더욱이, 인각사 앞의 물이 현재에는 깨끗한 1급수지만 댐이 건설되면 상황이 변한다고 한다. 댐이 건설되면 그 물은 고인 물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된다. 1급수의 물이 3급수로 변하는 데는 채 5년도 안걸릴 것이라 주장한다.(ID: shlrhr)

대안으로, 댐건설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을 오히려 수몰물의 질적 향상에 쓰자는 의견이 있었다.(ID: kl2a)

전반적으로 대다수 통신원들이 크게 분개하며 이미 2백명 이상이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가 ‘문화유산의 해’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존에 역행하는 이런 정책이 제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통신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에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용섭 기자)

고 황 만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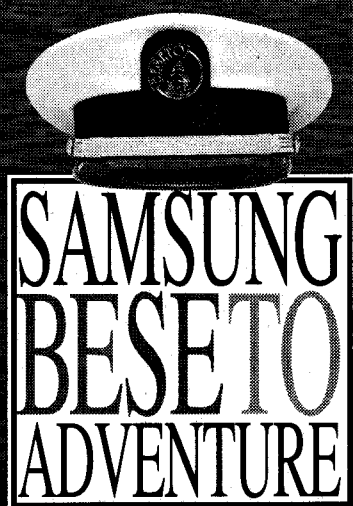
김진우



“나는 남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한국의 젊음이, 그대를 베세토海의 제독으로 임명한다!



베이징, 서울, 도쿄를 잇는 동북아시아는 21C 세계의 중심, 베세토海... 그 바다에

한국의 젊음 이백명을 파견합니다.

삼성 BESETO ADVENTURE가 진취적인 젊음을 기다립니다

BESETO란?
북경(Beijing)-서울(Seoul)-동경(Tokyo)의 합성으로 21C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의 중심축을 의미함.
SAMSUNG BESETO ADVENTURE는 21C 베세토 시대의 주역이 될 한국의 대학생들이 삼성에서 제공하는 동북아 평화의 배를 타고 중국과 일본의 바닷길을 따라 역사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임.

1. BESETO ADVENTURE 개요

ADVENTURE 지역	선발인원	ADVENTURE 기간(예정)
일본	100명	7.20~7.31(11박12일)
중국	100명	8.10~8.21(11박12일)

□ 주요 ADVENTURE 지역은?
중국: 북경, 청도, 상해, 소주 및 남경·진장 등 양자강(장강) 유역
일본: 동경, 나가사키, 후쿠오카, 오키나와, 오사카, 교토, 나라, 히로시마

□ 주요 프로그램은?
삼성 지역전문가(외의 지역탐구) 양자강·세토해 크루즈 / 현지 대학생과의 Forum / 국내 지역인사 선상세미나 / 삼성 현지 문화공연 / 인터넷 정보사상대회 등

2. 지원 자격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정규 4년제 대학(교) 재학생

3. 지원 방법
1) 3인 1팀으로 지원 (동일대학이 아니라도 지원가능, 전공 제한 없음)
2) 일본·중국지역 중 백발

4. 제출 서류
1) 팀별 테마기획서 (매주 제출함)
■ 응모대상 (핵심)
① '남산100개' 역원이 있다면 21C 세계의 중심이 되는 동북아 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펼쳐줄까(사업계획서)?
② 21C 동북아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역할

2) 참가지원서 (리플렛에 부첨된 소정양식)
· 복사하여 사용가능
3) 개인별 자기소개서 (자유양식으로 작성, 제출)

5. 지원서 교부
1) 교부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 5층 509호 (2차대학 학생지(과)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2) 교부기간: 4/3(목)~4/25(금) 오전8시~오후4시

6. 지원서 제출
1) 접수처
①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 9층 901호 삼성 BESETO ADVENTURE 사무국
TEL: 02-729-9802~3
②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9 중앙빌딩 5층 509호
2) 접수기간: 4/21(월)~4/25(금) 오전8시~오후4시
* 우편 접수는 미검열 소인분에 한함입니다.

7. 선발방법 및 결과 발표
1) 1차: 서류심사 (결과: 5월중 개별통보)
2) 2차: 테마기획서 프리젠테이션 면접 및 신체검사
* 면접은 외부인사가 참여하여 실시합니다.
3) 합격자 발표: 1997년 6월 10일자 (월) 스포츠신문 및 개별통보

8. ADVENTURE 후 제출사항
· ADVENTURE 후 1개월 이내 탐방기 제출 (탐방기 발표대회 개최 예정)

9. 기타
1)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http://www.samsung.com) 및 유니텔(Go Samsung)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BESETO ADVENTURE 관련 모든 비용은 삼성에서 지원합니다.

SAMSUNG
삼성